

[SS061]

전 세계적 예방 문화의 핵심에 있는 건강과 행복

주제: 안전보건문화

날짜: 6월 1일 (월)

시간: 14:15-15:45

장소: 301B

좌장: Hans-Horst Konkolewsky (스위스)

책임자: Hans-Horst Konkolewsky (스위스)

사업장에서 예방의 초점이 전통적인 업무 안전 접근법에서 더 광범위한 예방 접근법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예방 접근법에서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업무적 관점과 비 업무적 관점에서 본다. 예를 들어, 정신 건강 문제와 근골격계 질환은 직장 생활과 사생활 모두에서 위험 요인을 다루는 보다 전체적인 예방 조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스페셜 세션은 전 세계적 예방 문화의 발전과 촉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업장과 사업장을 넘어 안전과 건강, 행복을 다루는 통합적인 예방 접근법의 개요를 설명한다.

근로자의 안전, 건강, 그리고 행복에 대한 업무, 비업무 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Paul A. Schulte

교육정보과,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신시내티, 미국

소개:

인구통계와 직업계의 주요 변화는 근로자들과 기업,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업무와 비업무 요인의 상호작용과 관련되는 새로운 위험 패턴이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중대한 건강 관련 조건은 대부분 업무와 비업무 요인의 조합에서 기인한다.

방법:

선행연구에서 직업과 개인적 위험 요인(연령, 성별, 만성 질환, 비만, 흡연, 음주, 처방약의 사용)의 상호작용의 네 가지 조합 모델을 나타내는 32개 사례를 식별했다. 본 연구는 근로의 이점을 최적화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상호작용적 위험을 다루기 위해 조작할 수

있는 포괄적이거나 통일적인 개념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결과:

“행복”이라는 개념의 조작화는 상호작용적 위험과 업무 성격, 노동인구, 사업장의 변화를 다루는 한 가지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업무 및 비업무적 위험과 촉진자를 구별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요인들 간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하게 할 수 있는 연구와 개입 전략을 식별할 수 있다.

토의:

근로자들의 행복은 인구 전체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수준 분석과 개입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행복 달성에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행복 조작화와 관련되는 공공정책의 의미,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포용적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전제조건 - 사업장에서 안전, 건강, 행복 추진

Walter Eichendorf

관리부, 독일 산재보험조합중앙회(DGUV), 상트 아우구스틴, 독일

행동 예방은 건강에 위험을 끼치는 행동(예: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 흡연)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조건 예방은 사업장 환경 내에서 및 사생활에서 기술적, 조직적, 개인적/사회적 조건과 그러한 조건이 행복이나 질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예: 스트레스의 영향)을 다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방은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방지하거나 가능성을 낮추주거나 완화시키는 포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조치와 활동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보건과 안전의 촉진은 건강 증진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스타일과 생활양식으로 살도록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태도와 행동, 생활, 근로, 그리고 환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운영 예방 서비스의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과제는 사람들이 건강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험을 회피하도록 장려할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 그룹의 정보(예: 보건과 안전 위험에 대한 정보)와 동기(예: 기업에서 건강 일수 같은 사업장 건강 증진 조치를 통하여)의 조합이 중요한 도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장에 대해서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예: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이 양 예방 접근법이 공동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강력한 도구이다. 발표 과정에서 독일 산재보험조합

중앙회(DGUV)의 경험의 몇 가지 성공 사례가 제시될 것이다.

예방에 대한 삼차원적 접근법: 직업상 위험, 사업장에서의 건강 증진과 직장 복귀

Hans-Horst Konkolewsky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제네바, 스위스

급변하는 경제 환경의 맥락에서 노동 인구는 많은 업무 관련 건강 난관에 계속 부딪힌다. 신기술, 인간공학적 위험, 인구통계학적 변화, 스트레스, 그리고 다른 사회심리적 요인이 근로자들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 오늘날의 근로 세계에서, 직업적 요인과 비 직업적 요인 모두 사업장에서 건강과 업무 성과를 결정한다. 그 결과, 예방의 초점이 전통적인 기술적 위험관리 접근법에서 안전과 건강, 행복이 상호 관련되는 더 전체적인 예방 문화의 장려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는 위험 관리, 건강 증진, 그리고 직장 복귀 조치를 연결하는 삼차원적 예방 접근법을 개발했다. 예방의 이 세 가지 차원 각각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사업장과 사회라는 전체적인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이 세 차원은 함께 오늘날의 건강 위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제공한다. 이 세 차원은 개인의 건강이 예방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각 예방 수준에서 개인의 건강을 보호, 유지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보건 전문가들이나 안전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없다. 사회 보장이 직업상 위험, 사업장 건강 증진 그리고 직장 복귀를 다루는 데 있어 주요 요소로 간주된다. ISSA는 가이드라인과 우수관행 본보기, 그리고 예방에 대한 이 삼차원적 접근법을 보완하는 일련의 워크숍으로 예방에 기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전 세계적 예방 문화를 향해 - OSH 실무자의 역할

Jane White

정책부, 산업안전보건협회, 레스터, 영국

목적:

본 연구는 긍정적인 예방 문화의 원칙의 개요를 제공하고 관리직과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안전 문화와 행동의 개선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긍정적인 문화의 여러 지표를 제공하고, 문화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예방 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설명하는 방법의 개요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예방 문화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고 긍정적인 장려로 어떤 것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로 사례연구를 포함한다.

방법:

현재, 보건과 안전 관리는 전체론적인 방법으로 근로환경, 장비, 시스템과 절차, 그리고 조직 내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OSH 전문가가 이끈 본 연구는 긍정적인 예방 문화가 이익을 보여 주는 업계의 예를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사례 연구에는 46개국에서 운영되는 팔레트와 컨테이너 풀링 솔루션의 세계적인 리더인 CHEP, 가스 및 유틸리티 부문의 HSE 안전 문화 모델 파트너십 그리고 전기 부문의 SUSANA(안전행동 및 불안전행동) 사용 등이 포함된다.

결과:

OSH 전문가들은 더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생각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좋은 안전보건문화의 일부 측면을 설명하고 근로자와 조직이 이러한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함에 의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

전 세계적 예방 문화를 향해 -

효과적인 예방을 실시하기 위해 HSE 전문가와 관련 전문기술자 간 필요한 협력

Giancarlo Bianchi

회장, 안전보건환경전문가협회(AIAS), 밀라노, 이탈리아

본 연구는 효과적인 위험 예방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이 국제표준을 준수하면서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의 HSE 관리자와 전문기술자 사이에 구현될 필요가 있는 필수적인 시너지와 협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더 중요한 점은 앞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공통적인 윤리 강령의 정의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이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프로세스를 개시하

는 것이 제안된다.

전 세계적 예방 문화를 향해

Seong-kyu Kang

집행부, 안전보건공단(KOSHA), 서울, 대한민국

소개: 산업재해를 저감이라는 산업안전보건(OSH)의 목적은 예방 문화의 변화 없이 공학적 관리로는 달성될 수 없다.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안전 장치와 장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의 기술적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와 질병의 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 기술 측면이 개선된 후에는 OSH 관리 시스템이 산업재해와 질병 저감에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장이 안전 측면에서 기술적 및 전체적으로 개선되더라도 재해는 계속된다. 사람은 항상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보이는 위험에는 무조건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행동은 학습된 것이고 경험에 의해 길러지는 소위 조건반사이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집단적 조건반사는 사업장의 재해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안전 문화이다.

예방 문화

안전 문화는 작업 관련 재해와 질환의 예방을 위한 근로자들의 통합적 행동 패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식 역시 안전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행동이다. 안전 문화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그들의 행동에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일터에서 조심하도록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 및 전체적 환경이 안전한 환경으로 변화될 때만 효과가 있다. 따라서 문화가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행정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방 문화이다.

세계화된 세계의 구현

예방 문화를 구현하는 방법은 경제적 발전 상태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과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예방 문화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사업장은 공학적 관리 및 안전 준수를 통해 안전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 행동을 다루기 전에 안전장치와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위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태도

와 행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예방 문화를 개선하는 데는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OSH 관리 시스템 수립이 예방 문화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사업장은 위험 평가를 포함한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할 수 있다. 작업 프로세스를 인간의 행동을 고려해 설계하고 설정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산업안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간의 행동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선진국의 예방 문화의 최종적인 도구이다. 사람은 어릴 때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생 습관은 사람이 매우 어릴 때 배운 것에 의해 결정된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공학적 관리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근로자의 행동 변화가 재해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결론: 예방 문화의 주안점은 경제 발전 상태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예방 문화의 각 단계가 점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올 수 있다. 각 근로자의 태도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방 문화가 아니다. 예방 문화는 근로자의 행동을 다루는 대신에 규칙 준수에서 시작해야 한다.

Health and Wellbeing at the Core of a Global Prevention Culture

Topic: Health and Safety Culture Date : June 1 (Mon.)

Time : 14:15-15:45

Location : 301B

Chair : Hans-Horst Konkolewsky (Switzerland)

Responsible Person : Hans-Horst Konkolewsky (Switzerland)

The focus of prevention at work has increasingly been widened from the traditional work safety approach to a broader prevention approach, where the health, safety and wellbeing of the individual person are seen from a work and a non-work perspective. For example mental health problem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require more holistic prevention measures that address risk factors both in the work life and private life. Hence, this Special Session outlines an integrated prevention approach that addresses safety, health and wellbeing at the workplace and beyond as a prerequisite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a global prevention culture.

Addressing Work and Nonwork-Related Threats to the Safety, Health, and Well-Being of Workers

Paul A. Schulte

Education and Informa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incinnati, USA

Introduction:

Major changes in demographics and the world of work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workforces, businesses, and nations. New patterns of hazards that involve the interaction of work and nonwork factors are affecting workforces. Many of the most prevalent and significant health-related conditions affecting workers result from a combination of work and nonwork factors.

Methods:

Previously, we identified 32 examples illustrating four combinatorial models of the interaction

of occupational and personal risk factors (genetics, age, gender, chronic disease, obesity, smoking, alcohol use, and prescription drug use). Our research indicates that there is a need for an overarching or unifying concept that can be operationalized to optimize the benefits of work and simultaneously address these interactive hazards.

Results:

Operationalization of the concept of “well-being” may provide one such approach to addressing interactive hazards and changes in the nature of work, the workforce, and the workplace. It is useful to distinguish work and nonwork threats to, and promoters of, well-being. By doing so, it is possible to identify research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might lead to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important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Discussion:

The well-being of the workforce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well-being of the population. Multilevel analyses and interventions will ultimately be important in achieving well-being in the workforce. This presentation describes the public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needs, and critical issues related to operationalizing well-being for workers.

Promoting safety, health and wellbeing in the workplace is a prerequisite for inclusive societies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Walter Eichendorf

Management,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Sankt Augustin, Germany

Behavioural prevention aims at avoiding behaviour that poses a risk to health (e.g. unsafe and unhealthy actions, smoking), conditional prevention on the other hand deals with technical, organizational and personal/social conditions within the environment in the workplace as also in private life, and their impact on the occurrence of wellbeing or diseases (e.g. impact of stress). Prevention in that context should be implemented as comprehensive and target-orientated measures and activities, which prevent, make less likely or ease specific damage to health. The promotion of health and safety should be correspondingly targeted influencing of attitudes and behaviour, and living, working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with

the aim of increasing health promotion services and motivating people to live a healthy and safe work style and lifestyle, too. A major task of the stakeholders in operational prevention services is to provide information and advice to individuals with the general aim of encouraging them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f health and avoid risks. The combination of information (e.g. on health and safety risks) and motivation (e.g. through workplace health promotion measures such as health days in enterprises) of the target groups is a crucial tool. In that context campaigns aiming at the general public also as to the workplaces (e.g.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is verifiable a powerful tool in which both prevention approaches can be jointly included. In the course of the presentation some successful examples from the experience of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DGUV will be presented.

A three-dimensional approach to prevention: occupational risks, health promotion at work and return-to-work

Hans-Horst Konkolewsky

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Geneva, Switzerland

In the context of a rapidly-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the working population continues to face a multitude of work-related health challenges: new technologies, ergonomic risks, demographic changes, stress and other psychosocial factors affect the lives and health of workers and result in a significant burden on national economies. In today's world of work, both occupational and non-occupational factors determine health and performance at work. As a consequence, the focus in prevention is gradually widening, from a traditional technical risk management approach, to the promotion of a more holistic prevention culture, where safety, health and well-being are interrelated. In response to this,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 has developed a three-dimensional prevention approach, linking risk management, health promotion and return-to-work measures. Each of these three dimensions of prevention contributes to the overall objective of a safer and healthier workplace and society. Together, these dimensions offer a powerful response to today's health risks: they illustrate that the health of the individual must be placed at the centre of prevention. At each level of prevention, a proactive effort is required in order to protect, maintain or restore the health of

the individual. This cannot be done by health or safety professionals alone. Social security is considered a key player in addressing occupational risks, workplace health promotion and return to work. The ISSA actively supports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that are will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on with Guidelines, Good Practice examples and a series of workshops that complement this three-dimensional approach to prevention.

Towards a global prevention culture - the role of the OSH practitioner

Jane White

Policy, The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ister, United Kingdom

Objectives:

This presentatio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principles of a positive prevention culture and looks at improving safety culture and behaviour through leadership and worker involvement. It provides some indicators of a positive culture and outlines ways of improving culture, as well as describing some of the elements needed to develop a global culture of prevention. The presentation includes case studies as examples of how prevention cultures can be improved and what can be achieved with positive promotion.

Methods:

It's now generally recognized that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hould embrace – in a holistic way –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working environment, equipment, systems and procedures, and the people in the organization. Being led by the OSH professional, this presentation will showcase examples in industry where a positive prevention culture has shown benefit. And how these organisations have made it work. Case studies include; CHEP the global leader in pallet and container pooling solutions, operating in 46 countries. The HSE safety culture model Partnership working in the Gas and Utilities sector and the Electricity sector's use of SUSA – safe and unsafe act.

Results:

OSH professionals must aim to apply current thinking in a practical way to achieve healthier

and safer working environments. This presentation offers pointers to healthier and safer working by describing some aspects of a good health and safety culture and suggesting some steps that you and your organization can take to improve it.

Towards a global prevention culture - The necessary collaboration between HSE professionals and related specialist to implement effective prevention

Giancarlo Bianchi

Presidency, Associazione professionale Italiana Ambiente e Sicurezza (AIAS), Milano, Italy

The presentation aims to illustrate the need to implement in organizations a holistic management system, systemic and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implement an effective risk prevention system. In addition, the presentation attempts to outline the necessary synergies and collaboration that need to be implemented between the HSE Manager and specialists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 further important point is the definition of a common Code of Ethics covering all above areas and the proposal is to initiate a process by interested bodies to move towards this objective.

Towards a global prevention culture

Seong-kyu Kang

Executive Offic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Seoul, Republic of Korea

Introduction: The goal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which is lowering the occupational accident rate, cannot be achieved by an engineering control without changes in a prevention culture. In the beginning of economic development, reducing occupational accidents and illnesses can be reached by improving technical aspects of workplace by installing safety devices and equipment. After improvement in terms of technology, OSH management system

becomes to be important for reducing occupational accidents and illnesses. However, accidents continue even though workplaces are technically and systemically improved in the aspects of safety. A human being is not always born to behave safely. People, biologically, show an unconditioned response to the visible hazard or danger. However most behaviors toward risk are learned and raised by experience, in what is called as a conditioned reflex. Collective conditioned reflex that leads workers to behave safely can reduce accidents at workplace as low as possible. It is the safety culture.

Prevention Culture

A safety culture can be defined as an integrated pattern of behaviors of workers for prevention of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Awareness is also important to promote a safety culture. However, behavior can eventually make workers move toward the safe work. Safety culture is usually limited to workers and their behavior. In this point of view, it is emphasized to make workers wear a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deliver education to workers, and to remind workers to be careful at work. But, it works only if technical and systemic environment have been changed to safe one. Thus, the culture should be adopted by all stakeholders such as employers, managers, workers, administrators and so on. It is a prevention culture.

Implementation in a globalized world

The way of implementing a prevention culture is different from countries to countri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conomic status.

Establishing a policy and enforcing the law and regulations are the most important tools to promote a prevention culture in a developing society. Workplaces can be safe through engineering control and safety compliance. The safety devices and equipment must be installed before addressing workers' safety behavior.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workers at risky workplace can be altered according to relevant regulations. A role of employers is critical to improve a prevention culture at the developing society.

Establishing OSH management system is the most effective tool to promote a prevention culture in a developed society. Workplaces can be safe through systemic review of the process including risk assessment. Work process should be designed and set up with considering human behaviors. A role of occupational safety professionals is important at the developed society.

Changing human behavior toward being safe is the final tool of prevention culture in an

advanced society. People's lifelong habit is determined by what people learn when they are very young because people begin learning at their young age. Behavioral change of workers, which can be achieved by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prevent accidents at the advanced society since all engineering control and systemic management have been done.

Conclusions: The highlight of a prevention culture is different from each country depending on its economic development status. Each step of the prevention culture can come gradationally or simultaneously. Emphasizing only workers' attitude or behavior is not a real prevention culture. The prevention culture should start from keeping the rule instead of addressing workers' behavior